

예산 신레원 중심가로 경관특화 방안

박 철 희, 신 선 하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jacob10@cni.re.kr

이 과제는 예산 신레원 중심가로에 대한 현황과 경관정비 여건 검토를 통해 경관특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과제 개요
2. 신레원 및 중심가로 현황
3. 특화거리 조성 사례와 시사점
4. 중심가로 경관특화방안

요약

- 신레원은 조선시대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원(院)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조선 후기에는 포구를 배경으로 장시를 형성하며 예산지역에 대표적인 상업도시를 형성
- 교통물류·상업, 산업지대로서 신레원 장시(고덕 4·3독립만세 운동의 발상지), 신암의 추사 김정희, 동학 전투, (구)충남방적, 예산 최초의 경로당, 손가락 바위 등의 유산이 있음
- 현재의 신레원 중심가로(창말로)는 (구)충남방적과 신레원역을 연결하며 새로이 조성됨. 예산지역 내에서 보도 폭이 가장 넓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가로에 대한 정체성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가로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함
- 이에 본 과제에서는 현재의 중심가로를 특화개념을 ‘예산 신레원의 역사문화가 흐르는 시간여행의 길’로 하여 가로를 조성할 것을 제안함
- 경관 특화방안으로서는 창말로 시간여행거리 조성, 신레원 갤러리, 창말로 그린카페, 거리 문화공간 조성 등을 제안함
 - － 창말로 시간여행거리 : 신레원 역사와 추사의 삶의 정신을 담은 거리 조성 » 스토리보드, 타임라인 등
 - － 신레원 갤러리 : 창말로 상징조형물 설치, 담장갤러리 조성
 - － 창말로 그린카페 : 가로정원과 주민쉼터(벤치), 쌈지공원 조성
 - － 거리 문화공간 : 거리 문화이벤트 공간, 주민모임광장 조성

01 과제 개요

1.1. 과제 추진배경 및 목적

- 신례원은 조선시대 물류·교통의 중심지역이었으며, 신례원역, 충남방적 등을 배경으로 번성하였음. 그러나 교통여건의 변화, 산업쇠퇴로 인해 중심가로는 쇠퇴하고 활력이 저하됨
- 예산군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심가로를 경관을 특화하여 지역활성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예산읍 도시미관개선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예산군, 2016)을 통해 원도심 재생,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쾌적한 정주기반 구축을 추진
- 본 과제의 목적은 예산읍 신례원의 중심가로에 대한 현황·경관정비 여건 검토를 통해 경관특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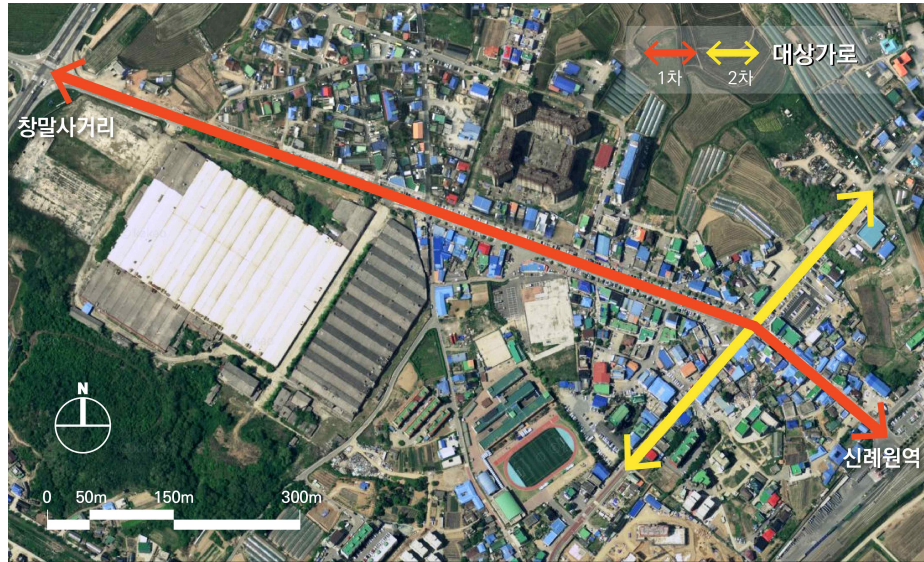
1.2. 과제 범위

1.2.1. 시간적 범위

- 과제기간인 18.3.16.~18.4.20.

1.2.2. 공간적 범위

- 예산읍 신례원 중심가로(창말로)
 - 위치 : 신례원역에서 창소사거리, 거리 : 약1,080m (약1.08km)



[그림 1-1] 공간적 범위 - 신레원 중심가로

1.2.3. 내용적 범위

- 과제의 내용은 신레원 현황조사, 사례조사, 특화방안 제시 등 세부분으로 구성됨
 - 첫째, 신레원의 인문·사회적 특징과 중심가로 경관 특성화 여건검토
 - 둘째, 특화거리 조성 사례에 대한 검토
 - 셋째, 신레원 중심가로 경관특화방안 제시

1.3. 연구 수행방법

[표 1-1] 내용별 수행방법

연구내용	연구 방법	비고
신레원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레원의 인문·사회적 특징 : 문헌, 논문, 보고서 자료 검토 · 신레원 중심가로 경관특화 여건 검토 : 현장방문조사, 관찰조사 	전문가 자문병행
사례조사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논문, 보고서 상에 조사 분석된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검토 	문헌조사 현장방문
신레원 중심가로 경관특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제시 : 현황 및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 · 중심가로 경관 특화방안 : 사례사진, 이미지 등을 통해 제시 	전문가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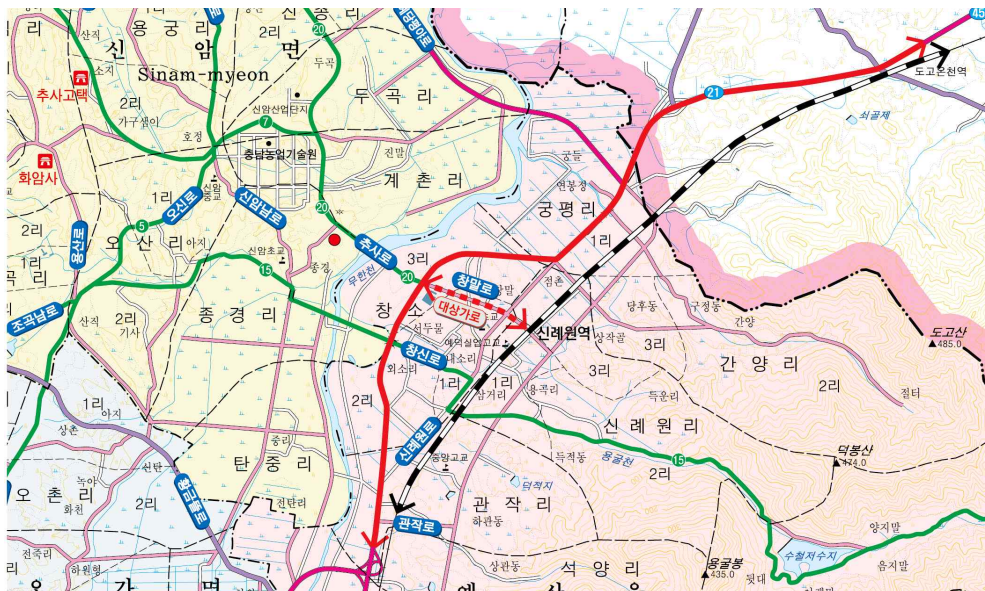
02

신레원 및 중심가로 현황

2.1. 신레원의 지리와 연혁

2.1.1. 지리

- 신레원은 용골천이 흐르는 평지에 자리하며, 시가화된 중심가로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음
- 대상 중심가로는 입지한 신레원은 행정구역상 신레원리 속해 있고, 예산읍의 중심지로부터 약 7km 정도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음
- 수계는 신레원리 중심부(중심가로 남쪽)에 용골천이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구비쳐 흘러 창소리를 거쳐 무한천에 합류함



[그림 2-1] 신레원 중심가로 주변의 교통현황

2.1.2. 도로

- 대상가로를 중심으로 예산읍에서 아산으로 이어지는 21번 국도, 32번 국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남쪽에 장항선 철도가 지나며 신레원역이 입지하고 있음
- 본 과제의 중심가로는 신레원역에서 21번 국도를 연결하는 창소사거리까지 형성된 가로로서 행정명으로 창말로로 지정되어 있고, 서북쪽 추사고택 방면으로 추사로가 입지

2.1.3. 지명유래와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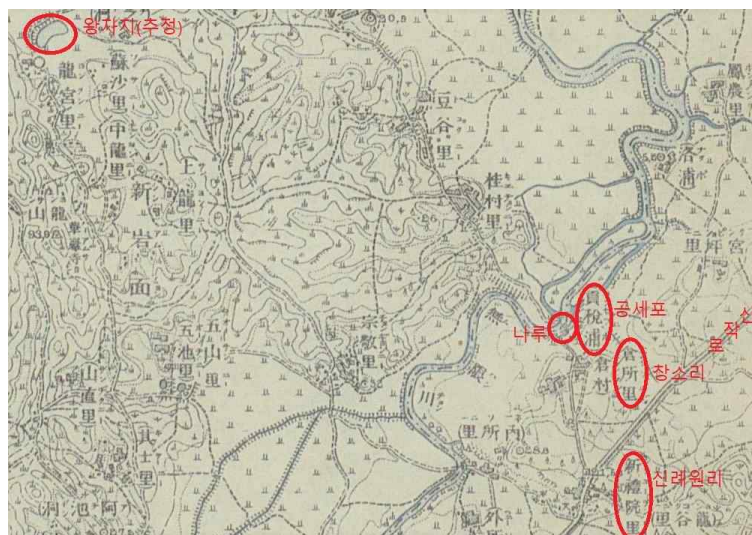
- ‘신레원(新禮院)’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조선시대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원(院)이 설치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임.¹⁾ 현재의 예산지역에는 신레원과 함께 덕산 봉요원, 대흥 가방원, 예산 무한성원, 고사원 등에 원이 설치됨
- 그 가운데 조선 후기 내포지역 면찬덕산-홍주로 통하는 길은 원래 무한성원에서 무한천을 건너는 길이었음. 『대동지지』에는 ‘큰 길[大路]이며, 가물면 다리를 건너고 장마철에는 배를 이용한다’고 하였음(김정호의 『대동지지』 「정리고」: 서울에서 충청 수영(水營)으로 가는 9번째 큰 길[西南至忠清水營九大路])



- 조선시대에는 신레원 북서쪽 약 1km 지점의 창리(倉里, 현재 창소리)에 각 지역에서 운반해 와서 선박을 이용하여 한양(漢陽)으로 보낼 예산대흥청양 등 3고을의 세곡(稅穀)을 보관했던 조창(漕倉)이 있었음

1) 역원(驛院)은 고려-조선시대 출장관리들을 위해 주요 길목이나 인가가 드문 곳에 설치한 국영 숙식시설로서 지방 통치와 교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임을 말한다. 역은 대체로 조선 후기에도 유지되었으나, 원은 일찍이 소멸되고, 조선 후기에는 주막이 그 기능을 대신하였다.

- 조선시대 원(院)이 설치되고, 3고을의 세곡을 운반하던 곳이므로, 1770년 이전에 3일과 8일에 개설되는 신레원장이 있었음(『동국문헌비고』)
- 이에 따라 후대로 갈수록 면찬덕산-홍주로 통하는 무한성원보다 신레원 인근 창소리의 나루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교통의 요지로 발돋움하였음
- 이러한 상황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져, 기선이 신레원까지 운항하였음. 1960년대 초까지도 여객선[한성회]은 인천을 기점으로 아산만의 한진나루를 경유한 후에 삼교천 초입의 맷돌포를 거쳐 공뿌리-부리포-궁평리-구양도를 경유한 후에 신레원까지 운행하였음
- 일제강점기에 신레원에는 일본인들이 다수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일찍 신레원교 주변에 주재소(마을회관 앞 추정)와 공립소학교(1912년, 현재 신레원초등학교)가 들어섰으며, ‘리(里)’ 단위의 신레원이었지만 행정적인 기능을 제외하면 면 소재지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1948년에는 충남여객자동차회사 신레원영업소가 개설됨으로써 신레원이 근대적인 교통의 요지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1950년대까지도 음식업(충남육, 서울육, 온천육, 동일상회, 상일상회, 포항집)과 숙박업(예신여관, 소화여관-후에 삼성여관)이 번성하였고, 도로변에는 시장이 형성되어 활발한 유통의 중심지였음. 1970년대 중반까지는 구삼거리(현재 서울상회 앞)가 신레원의 중심지로서, 이곳에서 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가 합덕으로 가는 도로였음



[그림 2-1] 1919년 신레원 인근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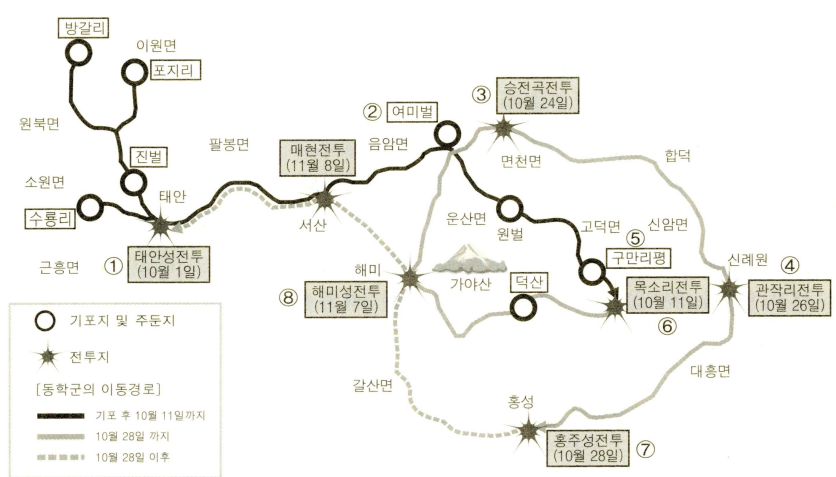
주 : 지도에 보면 신레원리 북쪽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은 신작로가 보이며, 3고을의 조창이 있었던 까닭에 ‘공세포’ 라는 지명도 확인할 수 있음

2.1.4. 마을

- 자연마을로는 강변, 가운데강변, 득운리, 바윗골, 방축동, 역전, 재궁마을 등이 있으며 유래는 다음과 같음
 - 강변마을은 냇가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고 가운데강변마을은 강변 중앙에 있다 하여 붙여짐
 - 득운리마을은 용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전설에 따라 지어진 이름이며, 바윗골마을은 커다란 황소바위가 있었다 하여 불리우게 된 이름이고 방축동마을은 방축이 있었다 하여 붙여짐
 - 역전마을은 신례원역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불리우는 이름으로, 용기점이 있었다 하여 점촌이라고도 한다. 재궁마을은 재궁(齋宮)이 있었다 하여 칭하게 된 이름

2.2.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

- 신례원은 과거 무한천 뱃길을 이용하여 장삿배들이 드나들고 내포지역과 아산-천안을 잇는 육로가 교차하였던 까닭에 잘 알려져 있었으며, 특히 조선 후기 예산장은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거론될 정도로 강경-공주장과 함께 현재의 충청남도 대표하는 장시(場市)로 유명하였음
- 신례원 인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은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최대 승전지가 인접한 관악리라는 사실임



- 충청도 내포지역의 동학농민군은 태안 원북면 방갈리(현 태안화력발전소 자리)에서 가장 먼저 기포한 후에 천안 방면으로 진격하여 전라도의 농민군과 합류하려 하였음. 즉 전라도 농민군은 공주를 거쳐 천안에 모이고, 경상도 농민군은 목천지역을 거쳐 천안으로, 내포지역의 농민군은 신례원에서 강을 건너 천안 방면으로 진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런 가운데 충청남도 내포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음. (위 지도 참조)
- 신례원과 이웃한 관작리 전투는 동학농민군의 최대 승전지 중의 하나였음
 -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7년 예산군과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공원 건립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임

[표 2-1] <관련 기록> : 『개벽』 제46호(1924년 4월 1일) 「戰史上으로 본 충청남도」 중에서 ‘甲午 東學과 忠淸南道’

甲午東學亂은 朝鮮 근대사상에 일대 異彩다. 朝鮮 민중운동의 第一聲이다. 其 動機如何와 因如何는 세인이 皆知하는 바인즉 茲에 贅論할 필요가 無하거니와 政府改革, 民衆解放이 其 주요 목적이다. 其 動亂의 최초 火蓋를 開한 지방은 물론 全羅道 古阜郡이나 당시 東學黨의 제일 세력이 강대한 곳은 忠淸南道요. 動亂도 또한 此地가 중심이 되었다. 환언하면 甲午 東學亂은 忠淸南道로 인하여 대세력을 得하였고 忠淸南道로 인하여 또한 大失敗를 하였다. 당시 忠南의 東學黨은 德胞 禮胞 淸胞 忠慶胞 山川胞 洪胞 등이 잇섯스니 德胞는 朴寅浩(今天道敎春菴先生)을 중심으로 한 德山, 禮山, 新昌, 溫陽, 洪州, 結城, 沔川, 唐津, 瑞山, 泰安, 天安, 木川, 등 忠南 일대와 京畿의 漣川, 楊州 일대를 통합한 교단이오. 禮胞는 朴德七, 淸胞는 孫天民 외 文天釗, 李永範, (起兵洪州葛山) 忠慶胞는 申澤雨, 李鎭龜, (起兵結城) 山川胞는 韓明淳, 李昌九 (起兵沔川) 洪胞는 韓某 李某(姓名未詳起兵洪州)를 중심으로 한 교단이니 其中 세력이 강대한 자는 德胞다. 甲午動亂을 際하여 이상 諸胞는 亂蜂과 如히 一時 兵을 起하여 海美郡 余美坪에 집중하니 불과 수일에 其衆이 수만에 달하였다. 최초 官軍과 沔川에서 포화를 交하여 勝戰谷에서 官軍을 일격대파하고(勝戰谷에서 승전함은 역시 奇緣) 乘勝長驅하여 파죽의 勢로 또 新禮院에서 官軍을 격파하고 禮山을 점령하였다. 이 新禮院戰은 忠南에서 東學亂이 起한 후 官軍과 최초 대격전이오 최대 승리다. 官軍의 死者가 수천에 至하고 洪州 軍官 金秉喆, 李昌旭, 朱弘燮, 韓基慶이 또한 此戰에 死하였다(其時自政府皆叙功)

- 일반인의 흥미를 끌 만한 문화자원으로는 추사 김정희가 신례원을 경유하여 현재 아산시 외암마을을 출입하였다는 사실임
 - 추사 김정희 둘째 부인은 외암마을에 세거하는 예안이씨 이간(李柬, 1677~1727)의 증손인 이병현(李秉鉉, 1754~1794)의 따님으로, 그 사이에 상우(尙佑, 1817~1884)와 상무(尙懋, 1819~1865) 두 아들을 두었음. 따라서 추사 본인과 아내 예안이씨, 그리고 두 아들이 외암마을을 종종 출입하였다고 전해짐

- 추사 김정희 첫 아내 한산이씨는 5년 만에 별세하여 관련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둘째 부인인 외암마을 출신의 예안이씨에 대한 애뜻한 정을 표현하는 편지가 많이 전함

[표 2-2] 제주에 유배되었던 시절 추사가 예안 이씨에게 보낸 편지

안 사람에게

오늘 집에서 보낸 서신과 선물을 받았소. 당신이 봄밤 내내 바느질했을 시원한 여름옷은 겨울에야 도착을 했고, 나는 당신의 마음을 걸치지도 못하고 손에 들고 머리맡에 병풍처럼 둘러놓았소. 당신이 먹지 않고 어렵게 구했을 귀한 반찬들은 곰팡이가 슬고 슬어 당신의 고운 이마를 떠올리게 하였소. 내 마음은 썩지 않는 당신 정성으로 가득 채워졌지만 그래도 못내 아쉬워 집 앞 붉은 동백 아래 거름 되라고 물어주었소. 독백이 붉게 타오르는 이유는 당신 눈자위처럼 많이 울어서 일 것이요, 내 마음에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소. 문을 열고 어둠 속을 바라보았소. 바다가 마당으로 물려들어 나를 위로하려 하오. 섬에는 섬의 노래가 있소. 내일은 잘 휘어진 노송 한 그루 만나러 가난한 산책을 오래도록 즐기려 하오. 바람이 차오. 건강 조심하오.

- 때로는 기생과 연분이 있었던 일이 발각되자, 아내에게 딱 잡아떼는 편지를 남기고 있음
 - 평양에서 추사는 당대의 명기(名技)로 유명한 죽향(竹香)을 만난 후에, 희룡조로 사랑을 나누 어보자는 은유적인 시를 지어 주었다가 발각되자, 변명하는 편지를 보냄

[표 2-3] 평양 기생 죽향에게 희룡조로 주다 (戲贈溟技竹香, 완당전집 권10)

피리소리 요란하자, 구멍마다 향기 나는데 노랫소리 이 마음을 길게 끌어당기는구나.
벌통의 벌이 꽃 찾아가잔 약속을 지키려 하니 높은 절개인들 어찌 다른 애간장이 있을꼬냐.
이 기생 저 한량 모두 모였으니 이 자리의 어떤 사람이 자운(紫雲)이 될 것인고.
평양의 새 원님을 시험 삼아 한번 보게 풍류 소문 낭자한 옛날의 사훈(司勳)일세.

[표 2-4] 추사가 부인에게 보낸 변명하는 한글편지(1829.11.26, 제18신)

“제18신 : (전략) 나는 일양이오며 집은 녀(此地)도 잊고(忘) 잊스오니 게서만 헛야도 다른 의심(疑心)헛실 듯호으나, 니집(李室) 편지가 다 거즌 말이오니 고지듯지 마옵. 참말이라 하고 이제 백수지연(白首之年)의 그런것 닐의 깃실잇가웃습.(중략) 기축(1829) 지월(至月) 녀(念)늑일 원춘(元春)”

→ 즉, ‘나는 일양이오며 집은 이곳도 잊고 있사오니 임자만 하여도 다른 의심하실 듯 하오나 니 집[李室: 즉 여동생] 편지가 모두 거짓말이니 곧이들지 마십시오. 참말이라 하고 이제 백수지연(白首之年, 다 늙은 나이)에 그런 것에 거리끼겠습니까. 웃습니다.’ 라고 죽향과의 관계를 고자 질한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며 딱 잡아떼고 있음.

- 이러한 연고로 추사 김정희는 처가인 외암마을을 자주 출입하였고, 현재 외암마을 건재고택에는 추사의 유물이 다수 전하고 있음.



[그림 2-2] 외암마을 건재고택 전경



[그림 2-3] 건재고택의 편액(巖山房)



[그림 2-4] 건재고택에 소장된 추사의 서화1



[그림 2-5] 건재고택에 소장된 추사의 서화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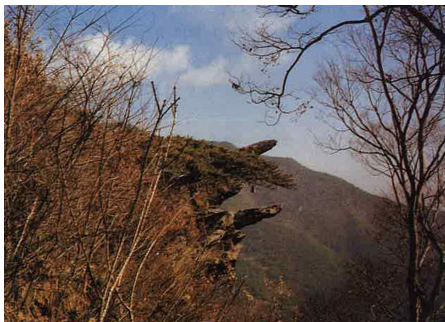
⇨ (신례원교)-창소사거리-신례원역까지 ‘추사가로’ 를 조성하고자 하는 도로는 추사의 부인 예안이씨가 친정을 가는 ‘근친(觀親)’ 길이며, 또한 추사 본인이 서울 나들이를 할 때 처갓집을 들를 때 이용하였던 경로임. 따라서 추사의 둘째 부인 예안이씨에게 보낸 편지는 가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টে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음

2.3. 관련 역사문화생활자산

- 신례원 중심가로는 있는 창말로를 중심으로 자산을 보면, 옛 신례원 장시(장터), 예산군 최초의 경로당, 도자기 전시장 등이 대표적이며, 주변에 이야기가 있는 손가락 바위, 재궁 등이 있음



[그림 2-6] 신례원 중심가로(창말로) 주변 자원현황도



[그림 2-7] 손가락바위



[그림 2-8] 예산군 최초의 경로당

[표 2-5] 신례원 관련 역사문화생활자산

자산명	내용	비고
신례원 장시 (신례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례원은 근대까지도 무한천을 통해 뱃길이 형성되어 있어 농산물과 해산물이 유통되는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이 곳이 신례원 장시임(조선 후기 예산의 대표적인 4대 시장의 하나였음) · 위치 : 현재 신례원1리 611번지 일원 – 신례원 장시 기록은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徐有渠)가 36년 동안 (1806년~1842년) 저술한 『林園經濟志』 에도 나옴 · 그러나, 점차 육로가 개척되고 장항선 철로가 부설되면서 점차 기능이 쇠락해지다 1960년대 시장 기능이 사라졌다. 	고덕 4.3독립 만세 운동의 발상지
예산군 최초의 경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경, 예산읍 신례원리 신암가는 구삼거리 앞에 행려자를 위한 무료숙박소를 설립이 기원이 됨 – 예산읍내에 거주하면서 집시촌을 만들어주어 행려자를 보호관리한 인물로 알려진 법무사 출신 서창재씨가 신례원지역에서도 자비를 써가며 행려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로 건립한 건물이 일명〈신례원 경로당〉의 효시 · 경로당은 행려자 뿐만아니라 여행객들이 묵어갈수 있는 편의시설로 이용되기도 했음 	
예산도자기 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례원에 도자기 공장이 입지하며, 이를 전시하는 전시장이 입지 · 다양한 도자기류를 만들어 왔고 무궁해향토옹기제품이 유명 	
손가락바위 (장수턱걸이 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해사 경내에서 북동쪽으로 약30m 쯤 되는 가파른 바위 상단부에 무언가 멀리 가리키는 손가락 모양의 바위를 말함 – ‘손가락바위’ 외에 6가지의 이름을 가짐. ①작대기바위, ②가세바위, ③쇠서(소허)바위, ④쉬흔질바위, ⑤장수턱걸이바위, ⑥용바위 등 · 전설에 의하면 어느 장수가 미모 처녀를 얻기 위해 100번 턱걸이를 하다, 99번 하고 힘이 없어 떨어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옴 	
재궁(齋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말 공양왕 원년에 楊廣道兵馬節制使 奉翊大夫典法判書 초암(草菴) 박인우(朴麟祐) 선생을 기리는 재실 · 위치 : 신례원리 5번지 	

2.4. 관련계획 검토 - 신레원 추가거리 조성(안)

- 예산읍 도시미관개선 중장기 마스터플랜(예산군, 2016) 상에 제시된 추사거리 조성 사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신레원로터리를 기점으로 하는 창말로 양측에 형성된 보행로는 예산읍에서 가장 여유 있는 보행환경을 갖춘곳으로 보행 용도 및 가로시설물을 설치 외에도 별도의 특화된 장소로 조성이 가능한 곳으로 봄

- 조성 구간은 신레원로터리에서 창소네거리까지 창말로 889m 구간 중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로터리 부근 280m 양쪽 구간을 대상으로 제시
- 조성 내용은 추사 선생의 탄생에서 유학, 벼슬살이, 유배 등 일대기를 일화 중심으로 기록한 가로전시물과 추사 선생의 유작인 세한도(歲寒圖), 모질도(耄耋圖), 부작란도(不作蘭圖)를 비롯하여 북한산순수비를 새로운 매체로 표현한 가로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



- 한편, 신레원 창말로에 조성을 제안하는 추사가로 조성사업은 신레원 회전교차로 조성 및 간판개선 시범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으로 각각부 정비와 간판 정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각각부 정비 공정에 맞춰 포장재 재포장 및 가로시설물을 교체할 것을 제안

[표 1-2] 추사가로 소요예산 내역

세부사업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1. 추사조형물	가로 전시대	EA	18	1,400,000	25,200,000	복합재료
2. 신레원 유래	3×2×0.7m	EA	1	8,000,000	8,000,000	
3. 시설물/벤치	2인용	EA	24	600,000	14,400,000	
4. 포장	280×2×5m	평방미터	2,800	80,000	224,000,000	오석혼재
5. 로터리 조경	수고 3.5m	주	3	6,000,000	18,000,000	백송
					289,600,000	부가세별도

- 연구계획 상에 제시된 신레원 중심거리와 관련된 공공디자인 사업예시는 다음과 같음



[그림 1-2] 간판개선 예시(신레원역 인근)



[그림 1-3] 신레원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2.5. 신레원 중심가로 현황

● A구간

- 창말로 로터리 구간은 가로환경 정비가 1차 완료된 구간으로 창말로와 신레원로의 시각적 축점을 형성하고 있음
- 도로 및 보도정비는 완료되었으나, 전선, 각종 공중선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경관적 위화감이 발생하고 되고 있음

● B구간

- 3~5m의 넓은 보도가 확보되어 있으나 차량주차로 인하여 보도 공간의 안정감이 떨어짐. 타 구간에 비해 보도블록이 노후되어 있으며, 가로시설물이 적치되어 유효보도폭은 상대적으로 좁음. A, B구간의 점포들이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이나 보행자는 많지 않음

● C구간

- 창소사거리 방향으로 (구)충남방직 건물과 넓은 논, 밭이 형성. 도로 및 보도정비는 완료되었으나, 보행유발요인이 없어 인접 추사로와 단절공간 발생



A구간, 로터리 교통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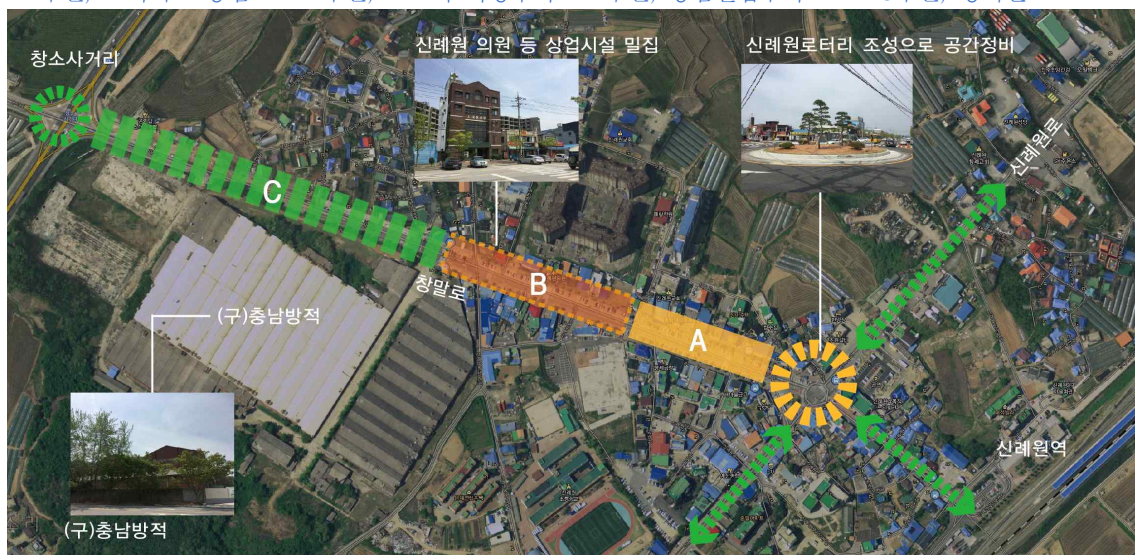
B구간, 보도와 차량주차



B구간, 상점밀집구역



C구간, 정비된 보도





» ③ : 도로 및 보도정비는 완료되었으나, 전선, 공중선 등의 미정비로 정돈된 가로 경관을 형성하고 있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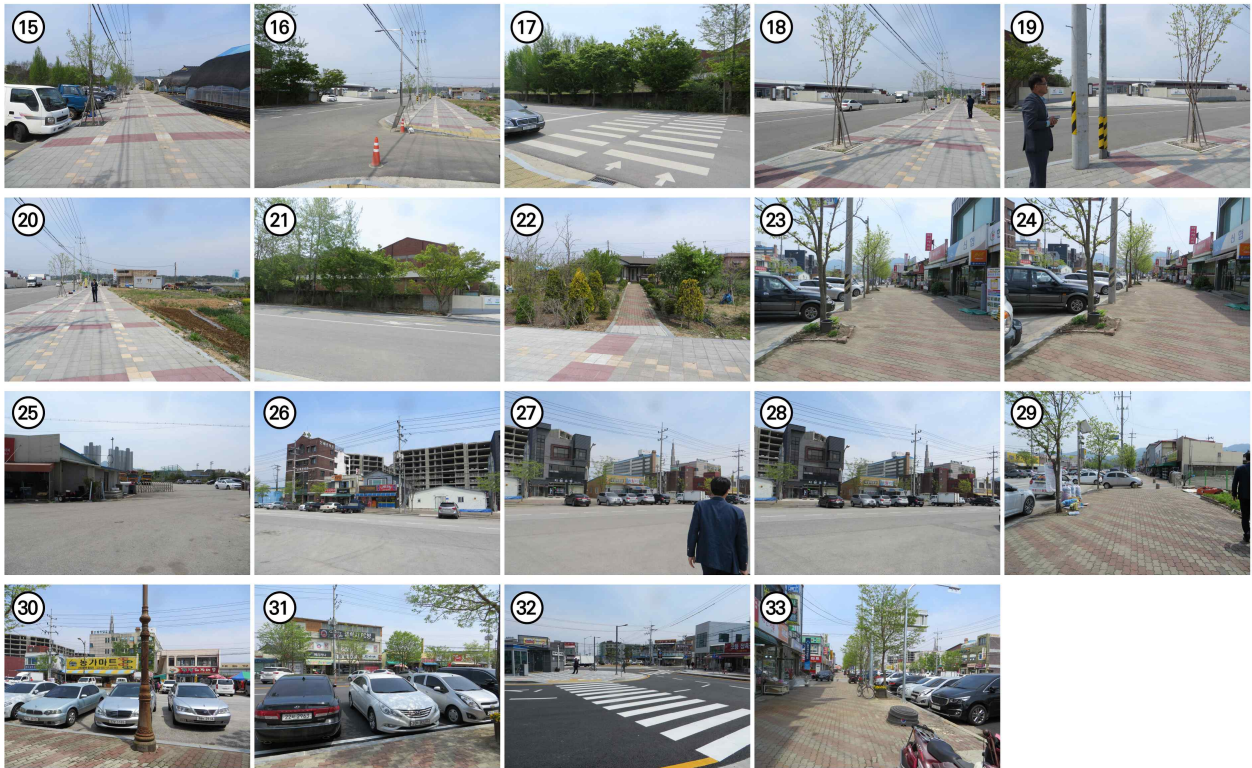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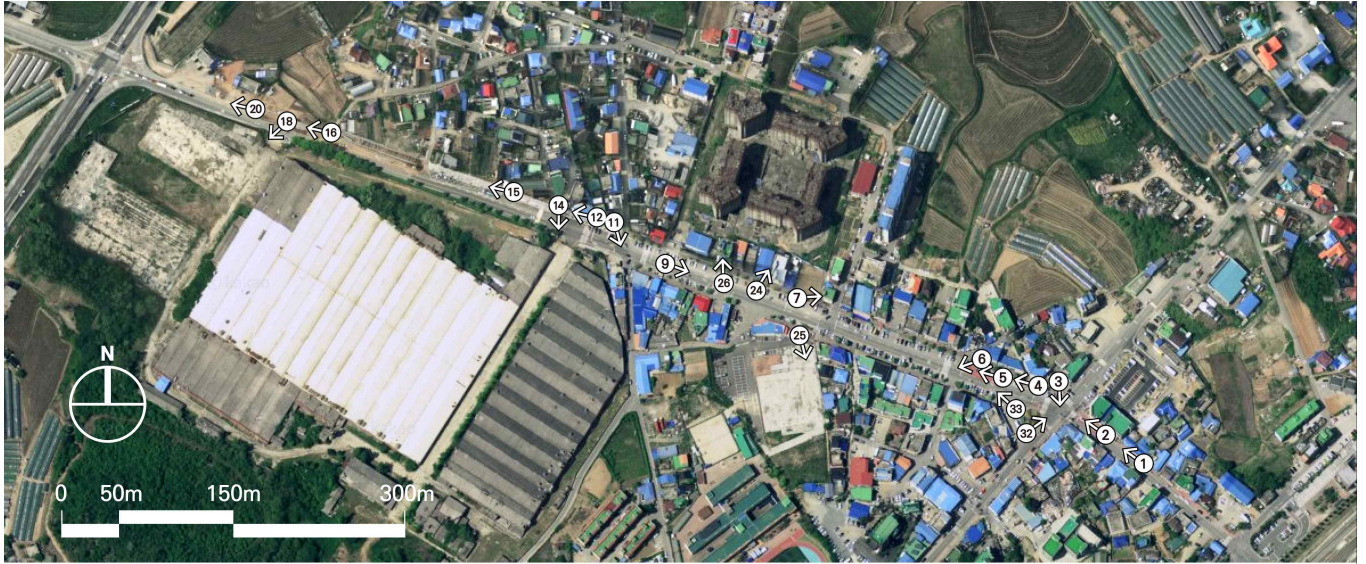
» ⑥, ③③ : 버스정류장, 가로설치물(에어폴), 입간판 등으로 인하여 넓은 보도 공간을 협소하게 사용되고 있음. 보행편의시설 부족으로 보행자가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 부족

» ⑦, ⑧ : 일부 건물 전면공간에는 주민들이 가꾸는 작은 가로화단이 형성되어 있음

» ⑨, ⑩, ②① : 신례원역~추사로를 연결하는 경관축이 형성되어 있음

» ⑬, ⑭ : (구)충남방직 예산공장이 위치해 있어 60~70년대 형성된 근대문화유산이 존재





- ≫ ③①, ③②, ③③ : 불법 사선주차로 인하여 가로경관에 혼잡과 일부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줌
- ≫ ②②, ②⑥ : 미분양아파트, 빈 대지가 있음

03

특화거리 조성 사례와 시사점

3.1. 특화거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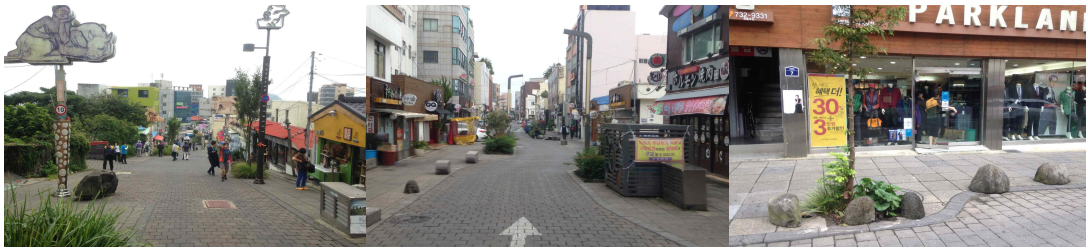
- 국내외 특화거리를 조성하였거나, 정비된 곳을 사례로 선정하여 조성 현황과 특징을 살펴봄
 - 국내 : 서귀포_이중섭거리, 대구_근대골목, 성남_성남시청 앞 보행특화가로,
파주_출판문화도시 가로, 수원_거북시장길, 구로_디자인서울거리 ‘창조길’
 - 국외 : 프랑스 리옹_가리발디 거리 Lyon's rue Garibaldi,
일본 고베_기타노 이진칸 거리 北野異人館, 교토_아라시야마 거리 嵐山

3.2. 특화거리 조성 사례

3.2.1. 국내 사례

- 서귀포_이중섭거리
 - 이중섭이 피난시절 머물던 곳에 이중섭미술관과 올레시장을 연결하는 특화가로를 조성
 - 이중섭의 작품테마를 활용한 가로 조형물, 벽면 갤러리 등이 설치된 문화특화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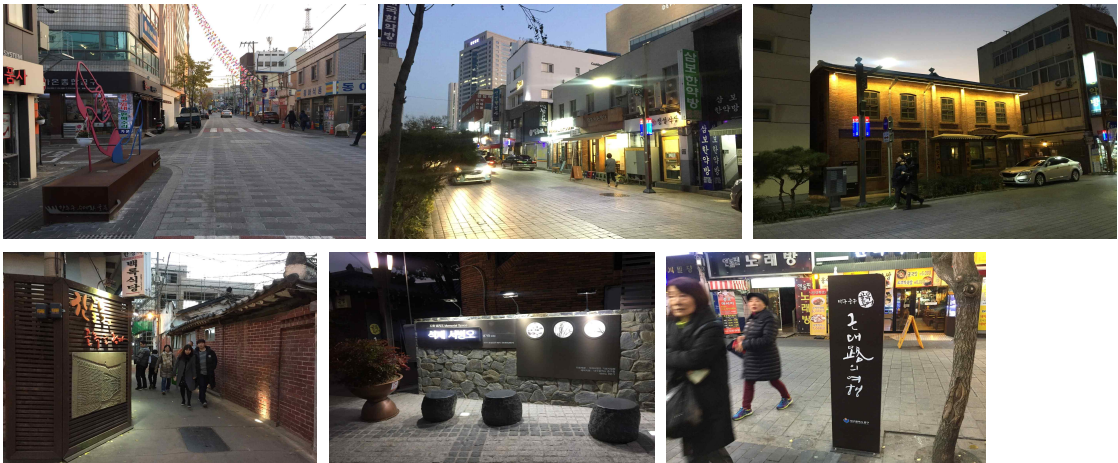




- 주말에는 프리마켓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로 변신
- 이중섭 그림을 입체화한 조형물 설치, 시설녹지를 개인 정원같이 꾸며 테마를 가진 녹지로 조성

● 대구_근대골목

- 대구 도심의 1900년대 미국 선교사 건물, 3.1만세운동, 이상화 고택 등을 연결하여 조성한 근대골목 가로
- 화강석으로 도로와 보도를 일체화하였으며, 곳곳에 작은 쌈지공원을 두고 안내시설물을 통합 설치함. 근대 골목투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벽면을 활용한 부조형태의 안내시설물이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며, 작은 쉼터와 안내시설물을 배치하여 보행자에 편의를 제공

● 성남_성남시청 앞 보행특화가로

- 성남시청 이전에 따라 여수동의 공공용지인 200m 거리에 조성된 보행특화가로
- 녹지를 활용한 쉼터와 앉음벽, 파타일로 장식된 벽면 처리 등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가로



- 앞음벽을 활용한 녹지구성을 통해 보행공간에 충분한 그늘과 쉼터 제공

● 파주_출판문화도시²⁾ 가로

- 지역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다양한 안내시설물과 가로시설물 설치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으며, 특이하고 개성적인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 강철 재질의 안내시설물, 방문객에게 체계적으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다양한 바닥포장소재를 활용하여 세련된 공간연출이 돋보이는 지역

● 수원_거북시장길

- 과거 영화역이 있던 지역으로 수원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쇠퇴한 영화시장을 경관협정을 통해 재생
- 수원 화성 장안문과 인접한 문화재지역으로 수원화성과 거북이의 이미지를 차용한 가로시설물 구성

2) 책을 만드는 출판인들이 책과 관련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조합을 만들어 Book City를 기획하고 조성

- 새솔막축제를 중심으로 매달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 개최



- 주말에만 보행전용도로로 활용되는 도로, 평상시에는 도로로 사용되는 공간이지만 축제가 열릴 때는 무대로 변신



- 앉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이동식 플랜터, 주민들이 자투리공간에 화단 조성, 영화역이 있던 시절의 옛길조성 장승을 세워 표시함

● 구로_디자인서울거리 '창조길'

- 제조산업 및 IT 산업의 중심지인 구로 디지털거리로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
- 연장(길이) 530m, 보도폭 5m, 광고물 개선 및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조경공사 시행
- 공중선 지중화 및 보도폭(기존 2~3m)의 확폭(5m)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가로변 시설녹지를 다양한 소재로 구성하고, 테마정원으로 조성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킴

3.2.2. 국외 사례

- 프랑스 리옹_가리발디 거리 Lyon's rue Garibaldi

- 프랑스 리옹의 3km 구간의 거리, 프랑스 정치인 가리발디의 이름을 붙임. 2012년부터 차로를 줄이고, 보도를 넓혀 녹색거리로 조성함



- 일본 고베_기타노 이진칸 거리 北野異人館

- 메이지 초기 다이쇼시대에 지어진 서양식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는 고베의 관광명소로서 중요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음
- 보존지구 내의 가로에 지역의 테마를 반영한 다양한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로를 조성



- 차도와 인도경계지역을 활용한 다양한 가로시설물이 돋보임

- 일본 교토_아라시야마 嵐山

- 일본 헤이안 시대에 만들어진 귀족의 온천장이 모인 관광지
-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한 보도공간은 다양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로시설물, 건축 등의 색채를 조정하여 색상의 정온화 시도



3.3. 시사점

- 기본적으로 가로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 특화가로 조성의 기본은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으로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며, 폭염에 대비한 가로수(조경) 및 녹지공간을 조성함
 - 보행자의 보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닥포장의 노면 평활성을 높이고, 가로공간 내에 보행자를 위한 작은 쉼터, 앉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물 도입함
- 지역이야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테마를 부여
 - 공간특화를 위해 유명 인물, 지역 산업 및 역사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
 - 테마 부여 방식으로 지주형 기둥, 벽면(부착) 조형물, 바닥매입 판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 조형물 외에도 벽면 갤러리, 조명주 설치 등으로 테마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강조
- 가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가로 활성화는 물리적 기반구축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이벤트와 주민 참여가 필수
 - 프리마켓, 축제, 가판대 설치 등의 시설물 중심 프로그램과 미술관, 예술가 레지던시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하여 거리활성화 추진
-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
 - 경관협정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에 지속력을 확보할 수 있음(서울시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은 보행환경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주민이 화단에 물을 주거나 청소하는 등의 지역 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가로 활성화가 가능

04 중심가로 경관특화방안

4.1. 가로경관 특화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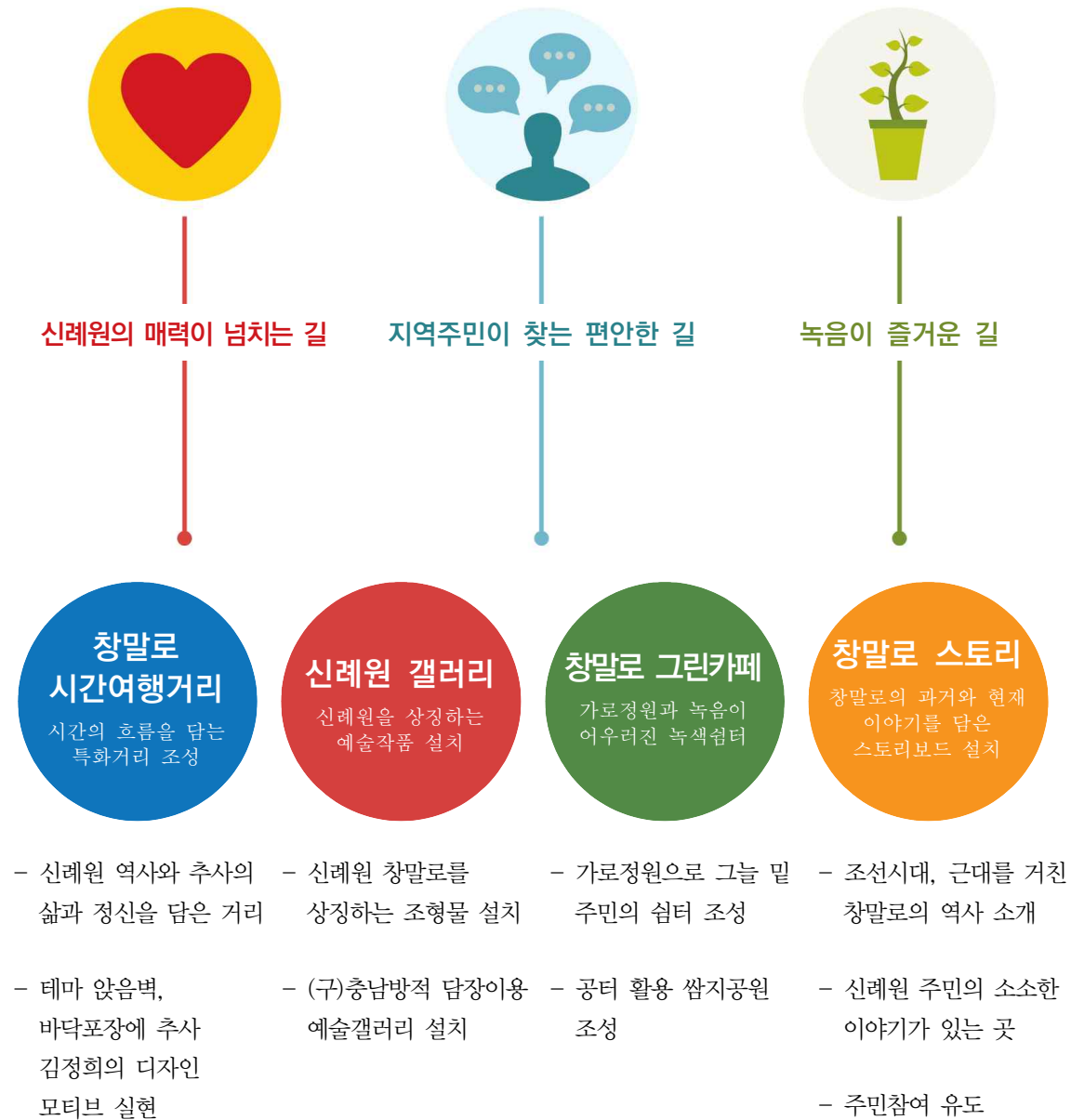
- 신레원의 중심가로는 신레원 주민들이 삶의 공간으로, 상업, 업무, 교류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과거 산업이 번창하였을 때는 가로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현재는 근린생활가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신레원은 조선시대 내포구와 시장을 중심으로 상업문화가 형성되었던 곳으로 역사문화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활성화가 요구됨
- 이에, 본 과제에서는 신레원의 역사적 배경과 가로 기능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특화개념으로 대상가로를 ‘예산 신레원의 역사문화가 흐르는 시간여행의 길’로 설정하여 조성할 것을 제안함

신레원 창말로 역사문화 특화가로

예산 신레원의 역사문화가 흐르는 시간여행의 길

- 가로 조성 방향 : 조선시대부터 교통·물류의 중심지였던 신레원... 신레원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중심의 가로로 조성

4.2. 신레원 중심가로 경관특화 컨셉



예산 신례원의 역사문화가 흐르는 시간여행의 길

신례원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 중심가로

유지 및 관리



4.4. 공간별 프로그램

4.4.1. 프로그램-1 > 창말로 시간여행 거리와 그린카페 조성

- 폭 5m의 보도공간을 활용하여 역사시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조성
 - 바닥포장에 부분적으로 역사테마 안내시설물 매입하며, 패턴을 통해 동선을 유도하도록 함
 - 시설녹지에 창말로 역사테마 안내시설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
 - 조선시대~1960년대까지 시간흐름을 반영하여 구간별로 다른 소재의 시설물 설치



창말로 역사소개 안내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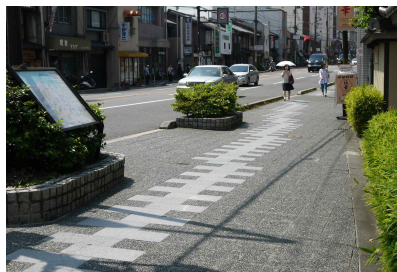
앞음벽 조성



창말로 역사소개 안내판 설치
앞음벽을 구성한 위에 신레원 창말로 레터링 조형물 설치



조선시대 상징포장(화강석)



창말로 타임라인 표시사례

- 다양한 시설녹지 공간을 식물이 아니라 벤치 및 신레원의 이야기를 담은 조형물, 시설 설치하여 역사테마공간으로 조성



시설녹지 활용 쉼터조성



독특한 시설녹지 조성



강남구 와우정동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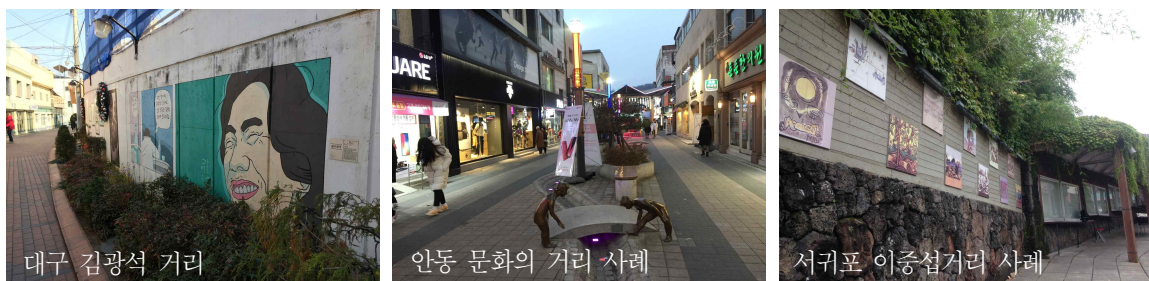
- 시설녹지 부분에 식재만이 아니라 다양한 포장 및 시설배치를 할 수 있음
-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을 활용한 테마시설물 설치



서귀포 이중섭 거리 사례

4.4.2. 프로그램-2 » 신레원 갤러리 조성

- 신레원 갤러리 : (구)충남방직 담장공간을 활용하여 신레원 창말로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가로 갤러리 설치. 주민 및 지역작가가 참여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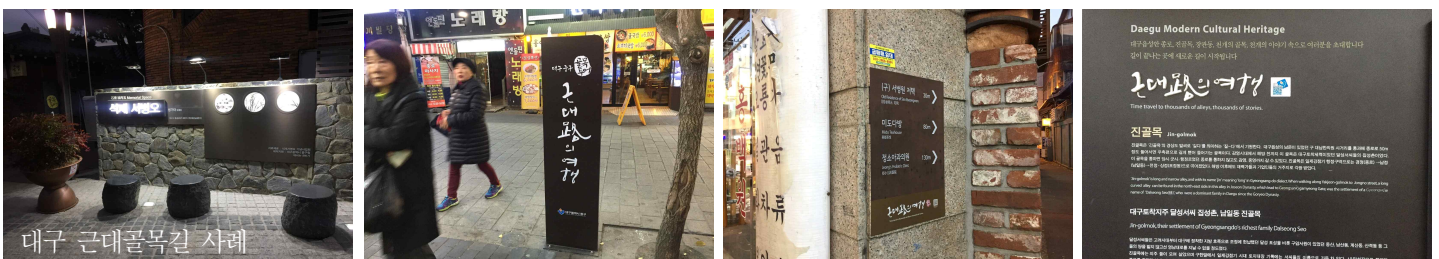


대구 김광석 거리

안동 문화의 거리 사례

서귀포 이중섭거리 사례

- 창말로 스토리 공간 조성 : 신레원, 추사 김정희, 충남방직 등 창말로와 엮인 지역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안내시설물 설치. 이용자를 고려하여 장식벽, 지주형, 벽면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



대구 근대골목길 사례

● 상징 조형물 설치

- 창말로와 신레원로 교차로의 교통섬에 소나무 대신 상징 조형물로 가로 상징성 강화 필요
- 조형물은 미니멀한 형태에 추사의 글자체를 활용하여 정보전달을 주 기능으로 하여 설치
- 바닥포장 및 시설녹지를 활용한 신레원의 역사문화테마 시설 매입



안양시 공공예술프로젝트 사례



길동 생태공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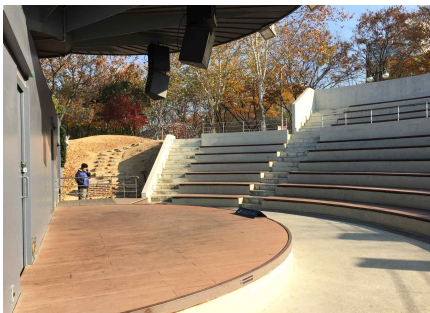


파주출판도시 사례

4.4.3. 프로그램-3 ≫ 이벤트 공간 조성과 공간 활성화

● 문화예술 이벤트 공간 확보와 프로그램 제공

-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이벤트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 행사 및 모임의 장소로 제공
- 이벤트 공간은 다목적 활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용에 가변성을 부여



대구 김광석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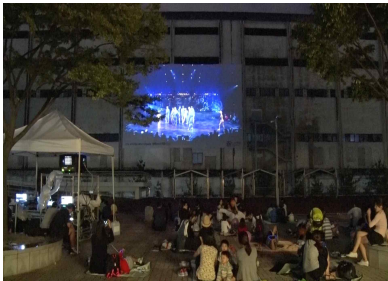


수원 거북시장 사례

● 중장기적 관점 : 창말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청주 연초제조창, 성수동 대림창고 등 공장건물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공장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청주 연초제조창



대림창고



대림창고

참 고 자 료

박철희 · 이정수, 2007,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오장섭, 1991, “예산의 脈”, 재단법인 오성장학회.

예산읍지 편찬위원회, 2017, 예산읍지.

예산군, 2016, 예산읍 도시미관개선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연구.